



# 동서중국브리프

2022년 중국 양회를 통해 본  
중국의 주요 대외정책

## 2022년 중국 양회를 통해 본 중국의 주요 대외정책

동서대학교 중국연구소

### 1. 중국의 양회(전국인민대표대회와 전국정치협상회의) 개최

- 정협 (2022.3.4.-3.10), 전인대 (3.5-3.11)
- 회의의 중점은 리커창 총리의 정부업무보고 (政府工作報告)와 예산안 승인
  - 정부업무보고의 내용은 주로 금년 5.5% 내외 경제성장 목표 제시 등 경제사회 분야 정책에 중점
  - 금년 가을 20차 당대회에서의 시진핑 주석의 3연임 선출을 앞두고, 무엇보다도 경제사회 안정을 강조
- 대외정책 관련 부분은 총리의 정부업무보고와 리커창 총리의 온라인 기자회견(3.11)에서 일부 언급, 그러나 구체적인 내용은 “중국의 외교정책과 대외관계”제하의 왕이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의 내외신 비대면 기자회견(3.7)을 통해 피력

### 2. 전인대 개최 전 중국의 대내외적 환경

- 국내정치적으로 시진핑의 3연임을 위한 정지작업 계속
  - 경제적으로는 작년 하반기 이후 하방 압력이 계속
- 코로나 19 감염이 하향 추세에 있으나 세계적으로 변종 바이러스 출현 등 불안 요소는 여전히 존재
  - 방역 당국에 의한 중국 내 제로 코로나 정책 지속

-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중국의 당혹스런 상황
  - 중러 전략적 협력관계에 따른 러시아 지원의 필요성  
(2022.2.2. 시진핑-푸틴 정상회담 공동성명에서 양국의 협력에 금지구역이 없으며, 양국 관계는 냉전의 정치군사 동맹체제보다도 우월하다고 천명)
  - 반면, 우크라이나는 일대일로와 상호 무역에서 중국의 주요 협력 대상국, 아울러 중국내 소수민족 문제 등을 고려, 주권 존중과 영토보전, 내정불간섭은 중국이 일관되게 주장해온 주요 원칙
  
- 중국에 대한 미국의 전략적 압박 심화
  - QUAD 활성화, AUKUS 동맹 창설, 한미일 협력, 양자 동맹 강조 등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중국에 대한 압박이 전방위적으로 보다 정교해지는 양상 (2022.2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 공표)
  - 경제분야에서도 새로운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 구상 제시, 반도체, 배터리 등 중심으로 중국에 대한 첨단산업에서의 공급망 재편 노력
  - 민주주의 정상회의 개최 등 이념과 제도 측면에서의 중국에 대한 압박도 동시 진행

### 3. 국제정세와 주요 대외관계에 대한 중국의 입장

#### 가. 국제정세에 대한 인식과 중국 정부의 대응 (3.7 왕이의 언급)

- 현 세계는 평화롭지 못하며, 지난 백년 동안 없었던 대변혁이 중국을 향해 전개되고 있다는 인식
  - 금년 또한 도전이 층만한 해로서 코로나 19가 여전히 유행하고 있고,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 그간 불확실했던 국제정세가 더욱 복잡해지고 혼란스러운 상태
  - 개별 대국(미국을 지칭)은 자신의 패권적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냉전적 사고방식을 다시 부활시키면서 진영대립과 분열을 조장, 국제사회에의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비판
  
- 중국은 책임 있는 대국으로서 다자주의 가치를 높이 세우고, 평화를 애호하고 발전을 추구하는 국가들과 함께 단결과 협력을 강화하여 도전에 대응하고 인류공동체 구축을 계속 추진할

것이라고 주장

- 대화와 협상을 통한 평화, 그룹정치가 아닌 진정한 다자주의, 개방과 경제글로벌화의 지속, 각종 형식의 보호주의 반대
- 코로나19, 테러리즘, 기후변화, 사이버 안전 등 글로벌 현안에 대해 소통과 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도 언급

## 나. 우크라이나 사태와 중-러 관계

- 리커창 총리의 3.11 기자회견시 언급
  - 중국은 이전부터 독립 자주적인 평화외교 정책을 채택
  - 각국의 주권과 영토보전의 존중, 유엔헌장의 취지와 원칙 준수가 필요하지만, 각국의 합리적인 안보 우려도 중시될 필요
  - 중국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쌍방이 대화와 협상을 통한 평화회복을 지지, 쌍방이 최대한 자제하여 대규모 인도주의 위기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는 입장
  - 현재 코로나 19의 충격으로 세계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러시아에 대한 제재는 세계경제회복에 충격을 주고 모든 당사자들에게 불리하다는 입장도 표명
- 중-러 관계에 대한 왕이의 언급 (3.7)
  - 중-러 관계는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양자관계 중의 하나
  - 중-러 관계는 독립 자주의 가치를 공유하고, 동맹을 맺지 않으며, 제3국을 대상으로 하지 않는다는 기초 위에 제3국의 간섭과 도발도 불용한다는 점을 강조

## 다. 대만 문제와 우크라이나 사태

- 정부업무보고 내용과 리커창 총리 언급
  - 중국의 대 대만 정책의 큰 틀은 “신시대 대만문제 해결을 위한 총체적 방략”에 따라 “하나의 중국” 원칙과 “9.2 공식”을 견지하고, 양안 관계의 평화적 발전과 조국 통일을 추진하는 것이며, 대만독립의 분열 움직임이나 외부세력의 간섭에 단호히 반대 (“총체적 방략”의 구체적 내용은 불분명)

### ○ 왕이 부장 언급

- 우크라이나 문제와 대만 문제는 본질적으로 차이. 대만은 중국영토의 일부분이며, 대만문제는 완전히 중국의 내정 문제이나, 우크라이나 문제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두 개의 국가 간의 분쟁
- 대만 정세의 긴장은 대만의 민진당 당국이 “두 개의 중국” 또는 “일중일대”를 획책하고 있으며, 미국의 일부 세력이 중국의 진흥을 억제하기 위해 대만독립 세력을 확장하고자 하는데 그 원인이 있다고 주장

## 라. 미중 관계

### ○ 리커창 총리의 언급

- 미중 양국이 상호존중, 평화공존, 협력 공영을 추구하며, 이성과 건설적인 방식으로 서로의 갈등을 관리하고, 상호 핵심이익과 중대 관심 사항을 존중하기를 희망
- 미중 양국간 갈등보다는 협력이 주류가 되어야 하며, 무역과 시장에서의 경쟁도 선의의 공평한 경쟁이 되어야 한다는 입장

### ○ 왕이 부장의 언급

- 미국은 전력을 다하여 중국에 대해 제로섬 게임의 격렬한 경쟁을 전개, 중국 핵심 이익의 문제들에 대한 공격과 도발을 멈추지 않고 있고, 중국을 압박하기 위한 소그룹을 만들어 미중 양국관계의 대국을 손상, 국제평화와 안정에 충격 초래
- 중국은 확고하게 자신의 정당한 이익을 수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완전한 권리를 보유
- 중미 양 대국이 구동존이의 정신에 따라 대결 대신 협력을, (미국 바이든 행정부의) 경쟁, 협력, 대결의 3분법 대신 상호존중, 평화공존, 협력공영의 3원칙에 따라 중미관계가 다시 건강하고 안정적인 정도로 돌아오도록 해야 한다고 언급

## 마.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대한 입장 (왕이 부장 언급)

- 미국은 지역협력을 추진한다는 기치 하에 지정학적 게임을 하고 있으며, 다자주의로 회귀한다고 말하면서 실제로는 배타적인 클럽을 형성하고, 국제규칙을 수호한다면서 자신의 국내법을

#### 내세운다고 비판

- 'Five Eyes'로부터 QUAD, AUKUA 동맹, 양자 군사동맹에 이르기까지 아태지역에서 5432 진세 구축이 초래하는 것은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교란하는 화근이라고 비난
- 중국은 아태지역의 실제에 부합하고, 각 측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구상에 대해서는 환영하지만, 지역의 대결을 부추기거나 진영간 대립을 조장하는 주장에 대해서는 단호히 반대
  - 중국은 각 국가들과 함께 아태지역에서의 대결을 위한 소그룹을 거부하고, 아태운명공동체를 향해 매진하기를 희망

#### 바. 중국의 일대일로

- 코로나 19 등으로 인해 어려움이 있었지만 일대일로 건설은 양호한 추세 계속
  - 현재까지 일대일로 협력국은 모두 180개 국가
  - 작년 일대일로 아태지역 국제협력을 위한 고위급 회의 개최, 중국의 백신 협력과 녹색발전 동반자 관계 구상에 대한 광범한 지지
- 앞으로도 중국은 국제사회와 함께 고질량의 일대일로 건설을 계속 추진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

#### 사. 중국의 “글로벌 발전 이니셔티브(全球發展倡儀)” 소개

- 시진핑이 작년 유엔연설에서 제기, 2022년 정부업무보고에 포함
  - 금년 1월 뉴욕 유엔본부에서 100여개 국가, 20여개 국제기구 대표들이 모여 동 시진핑 구상 관련 회의 개최
  - 인류운명공동체 건설에 이어 새롭게 제시
- 왕이 부장은 동 이니셔티브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유엔의 2030년 지속가능개발 프로그램의 성과를 거두는데 도움을 주는 것
  - 중점분야는 빈곤퇴치, 식량안보 등 개발도상국들이 당면한 긴박한 문제들에 대한 실질 협력 추진에 있으며, 정부 차원 뿐 아니라 민간, 비정부조직, 전문가 그룹, 언론매체 등 각방면의 적극적인 참여를 환영한다고 설명

## 아. 중-아세안 관계 및 남중국해 “행동 준칙(Code of Conduct)” 협상

- 중국과 아세안은 전면적 전략동반자 관계 수립, 목린 우호관계의 모범
  - 중국과 아세안은 국제적 방역의 선도자, 지역협력의 지도자, 아태지역 안정의 수호자 역할을 함께 해 나가갈 필요
  - 아태지역은 대국들이 게임하는 바둑판이 아니며, 아세안 국가들은 지정학적 쟁탈의 바둑돌이 아니라 바둑을 두는 기사
- 행동준칙에 대한 협상은 현재 관건적인 단계에 진입
  - 중국과 관련국들 간에 상호 이견이 있지만 목표는 동일하다는 것을 관련국들이 인식하고, 준칙 합의를 바라지 않는 역외국가(미국)의 간섭을 단호히 배척해야 한다고 주장

## 자. 중일 관계

- 금년은 중일관계 정상화 50주년으로서 쌍방이 그간의 역사를 총결하고 미래를 함께 열어가는 중요한 계기
- 그렇지만 현재의 중일 관계에는 여전히 갈등과 도전이 존재한다고 하면서, 일본 측에 대한 3가지 충고를 제시
  - 중일간 4개 정치 문건의 원칙과 정신의 준수
  - 역사, 대만 등 중대하고 민감한 문제들은 중일간 상호신뢰의 근본과 관련되는 사안으로서 일본 측이 이러한 문제들에 있어서 현재까지 승낙했던 것을 준수해 주기를 희망
  - 일본이 냉전적 동맹과 지정학적 대결 자세를 버리고, 진정으로 역사를 거울로 삼아 미래를 향해 지역의 평화, 안정과 발전을 위해 공헌하는 것이 마땅

## 차. 한반도 문제와 한중관계 (3.7 왕이 기자회견)

- 한반도 문제의 근본은 북한의 합리적인 안보 우려가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못하고 있는데 기인
  - 2018년 이래 북한은 대화를 촉진하기 위한 몇 가지 조치를 취했지만, 아직 그에 상응하는 (미국의) 조치가 없는데, 이는 각 측간에 이미 형성된 “행동대 행동” 원칙이라는 공통인식에

## 불부합

- 중국은 미국이 북한의 안보 우려를 해결하기 위한 실질적 조치를 취해 주고, 북한과 기본적인 상호신뢰를 구축함과 동시에 쌍궤병진과 점진적이며 동시 행동의 원칙에 따라 한반도 문제의 정치적 해결 프로세스를 부단히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 반복
  - 중국은 이를 위한 건설적 역할을 발휘코자 노력 예정
- 한중관계는 지난 30년 각종 어려움이 있었지만 전면적으로 빠르게 발전
  - 한중은 대결의 상대가 아니며, 공통의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협력의 잠재력이 큰 파트너
  - 한중수교 30주년을 계기로 우호적인 전통을 넓히고, 호혜 협력을 심화시켜 공동 발전을 더욱 잘 실현하길 희망

## 카. 기타 주요 양자관계

- 중국의 대유럽 정책은 장기적 시각에서 확고하게 유럽의 독립 자주와 EU의 단결과 번영을 지지하는 것
  - 중국과 유럽 관계의 안정적 발전을 원치 않는 일부 세력이 중국위협론과 제도적 차이를 고취하고 제재와 대결마저 부추기고 있지만, 유럽이 독립, 객관적인 시각에서 중국을 인식하고, 중국과 공동으로 신냉전 구도에 반대하며, 진정한 다자주의를 실천하길 희망
- 중-인도 관계는 근년에 들어 일부 좌절이 있었지만 이러한 상황은 양국과 양국민들 간의 근본이익에 불부합
  - 일부 세력이 중인도 간의 마찰을 일으키도록 하고, 지역 내의 분열을 조장하고 있지만, 중국은 인도와 함께 독립 자주의 정책과 상호 불위협, 발전의 기회라는 공통의 전략적 인식을 기반으로 상호 신뢰를 증진, 소모적인 대결을 지양하기를 희망
- 중국은 중동 국가들의 전략동반자로서 중동 국가들이 단결 협력하여 지역안보 문제를 해결하고, 중동 인민들이 독립 자주적으로 자신의 발전의 길을 모색하는 것을 일관되게 지지한다고 언급

## 4. 양회에서 천명된 금년도 중국 대외정책에 대한 평가와 한국에 대한 함의

### 가. 미국에 대한 비난 수위가 높아지고 그 범위도 확대

- 리커창 총리는 비교적 온건하게 미중 간의 협력 필요성에 대해 비중을 두고 언급하였지만, 왕이 외교부장은 미국에 대한 직접적인 비판은 물론 거의 다수의 주요 외교 사안에 일부 세력이 분열과 대결 구도를 획책하고 있다고 하면서 미국을 강하게 비난
  - 중국의 핵심 이익 수호와 관련, 확고하게 자신의 정당한 이익을 수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완전한 권리를 보유하고 있다고까지 공개적으로 언급
- 독립 자주 외교를 강조하면서 미국과 아세안, 유럽, 인도 등 국가들과의 틈을 만들려는 노력도 현저
- 특히 금번에는 미국의 인도 태평양 전략에 대한 불만을 강하게 표출
  -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의 목적은 인도-태평양관 NATO로서 미국의 주도적 패권을 유지하고 아세안 중심의 지역협력 틀에 충격을 가하는 것이라고 비난
- 바이든 대통령의 민주주의 정상회의 개최에 대해서도 비판
  - 전세계 절반의 국가들을 배제시켜 이념에 따라 구분하고, 분열을 조장하였으며, 미국식 민주주의를 민주주의 표준으로 삼아 타국의 내정에 간섭하는 유아독존이야말로 민주주의의 재난

### 나. 중국 국방력의 지속적인 강화

- 국방비는 전년 대비 7.1% 증가한 1조 4천 5백억 위안(약 2,250억 불)
  - 2019년 이래 가장 높은 증가율
  - 리커창 총리는 정부업무보고에서 국방과학기술의 혁신을 강화하여 군의 현대화를 가속화하겠다고 언급

#### 다. 우크라이나 문제에 대해서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양측을 모두 배려한 애매한 입장, 다만 중-러 관계에 대한 미국의 경고에는 반발

- 리커창 총리는 각국의 주권이나 영토의 완정은 존중되어야 하며, 중국은 자신이 스스로 판단하여 국제사회와 함께 평화를 회복하기 위해 적극적인 역할을 하고자 한다고 언급
  - 동시에 각국의 합리적인 안보 우려는 중시되어야 하며, 러시아 제재에는 세계 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을 고려 반대한다는 입장 표명
- 왕이 부장이 중-러 관계에 제3국의 간섭과 도발을 용인할 수 없다고 언급한 것은 중국의 러시아 지원시 중국에 대한 미국의 2차 제재 가능성 시사에 대응한 것으로 해석 가능

#### 라. 북핵 문제와 한중관계에 대한 입장 표명

- 작년에는 누락되었던 한반도 문제에 대한 언급이 최근 북한의 탄도미사일 시험발사 등으로 인해 다시 등장
- 그러나 북핵 문제에 대해서는 2020년과 같이 사실상 북한의 입장을 대변
  - 북핵 문제의 교착상태는 미국의 탓임을 지적
  - 북한의 합리적인 안보 우려 해소 필요성과 함께 단계적이고 동시 행동의 원칙이라는 북한의 주장을 반영
  - 다만 기존 중국의 입장이었던 쌍잠정은 왕이 부장의 언급에서 누락
- 한중관계에 대해서는 한중수교 30년에 대한 평가와 향후 양국관계 발전 희망 표시
  - 한중이 서로 대결의 상대가 아니라고 한 것은 한국 내에 확대된 중국에 대한 부정적 여론에 대응함과 더불어 한국 정부의 한미동맹 강화 방침이 중국을 목표로 하는 것을 경계한 것으로 해석 가능

#### 마. 기타 몇 가지 눈에 띄는 사안

-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대응, 아세안과 동남아 국가들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태도

- 중국과 아세안과의 전면적 전략동반자 관계가 역내 협력의 활력과 잠재력을 최고로 만들었다고 평가하고, 앞으로 중국과 아세안이 주도하여 국제방역, 지역 경제협력을 도모하고, 아태지역 안정의 수호자로서 중국-아세안 운명공동체를 향하여 계속 노력하길 희망
- 금년에는 중국-인도네시아 양자 협력관계도 왕이 기자회견에서 언급
- 과거 중국이 주장했던 유엔과 국제법을 기초로 하는 국제 질서에서 금년에는 국제법에 대한 언급 전무
  - 왕이 부장은 “유엔을 핵심으로 하는 국제체제와 유엔헌장의 취지를 기초로 하는 국제관계의 기본 준칙”을 언급
  - 중국이 서구사회에 의해 형성된 현재의 국제법에 대한 유보적인 태도를 보다 명확히 하려는 것인지는 향후 더 지켜볼 필요

## 바. 한국에의 함의

- 중국을 견제하려는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이 본격화되고, 이에 대한 중국의 대응도 보다 강해지고 있는 상황
  - 한국으로서는 전략적 선택에 대한 압박 더욱 증대
  - 한국의 국익과 가치에 입각한 정책의 기본 방향을 설정하되, 사안에 따라 전략적 유연성도 발휘할 필요
  - 특히 한미동맹이나 한미일 협력이 중국을 적대시하는 것에는 유보적 태도 바람직
- 북한의 비핵화 실현 가능성은 희박해지고 있는 상황
  -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중국의 의지는 점차 약화되는 정황
  - 한국으로서는 대화를 통한 비핵화 노력을 계속함과 동시에 북핵을 기정사실로 하여 대비할 필요
  - 우크라이나 사태에서 핵보유국의 유용성이 조명되고 있는 만큼 미국과 협의, 확장억제를 더욱 확실하게 구체화시키고, 동북아에서의 핵무기 관련 논의 동향을 면밀히 주시하는 것이 바람직
- 대중 정책은 당분간 한중관계의 안정적 관리에 방점을 두고 추진

- 한미동맹이 강화와는 별개로 한중관계도 중시한다는 기본 입장 견지
- 큰 기대는 하지 않더라도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중국의 협조 요구
- 만약 중국이 반대하는 전략적 사안에 대한 불가피한 결정 시, 사전에 한국의 상황을 중국 측에 충분히 설명함과 동시에 중국의 예상 보복 조치에 대해서도 사전 준비 (초당적 국내 여론 조성 등)
- 정치적 문제가 가급적 경제협력이나 국민 교류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중국을 설득할 필요, 중국의 보복 조치 시에는 국내적으로 단합하고 주요국들과 연계하여 의연하고 일관성 있게 대응 (마늘사건, 사드사태 참고)